월간 일본 수산 동향

2021년 12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수산협력센터

목차

일본 수산 동향

(1) 해양 플라스틱,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 01

(2) 레저어획도 어획량 보고 의무화 검토 03

(3) AI로 뱅어 신선도 평가 05

(4) 3대 대중어 어획 실적 부진 이어져 07

일본 수산 동향

(1) 해양 플라스틱,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

바닷속에 쌓이고,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쌓여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안과 인접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일부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일본 야마구치현 해안에 유입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폴리탱크가 장바구니로 재탄생함

-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 사이클 일환으로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하기 시와 민간기업 3사가 제휴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지역의 마트에서 사용하고 있음 (12.11~)

○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하늘색으로 하기시, 나가토시, 아부쵸 해안에서 수거한 푸른 폴리탱크 357개가 원재료에 혼합되어 있음

- 미국 환경 벤처기업 테라 사이클의 일본 법인인 테라사이클 재팬이 3천개를 제작

○ 야마구치현은 이외에도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 해안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할 정도로 대량의 해양 쓰레기가 만들어져 해안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다각도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필요한 상황

○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하고, 일본 환경성이 지원하는 시범 사업인 로컬 블루오션 비전 추진 사업으로 선정됨

○ 야마구치현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야마구치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은 대응임

출처 : 아사히 신문 (https://www.asahi.com/articles/ASPDC6RDLPDCTZNB001.html?iref=pc_ss_date_article)

일본 수산 동향

(2) 레저어획도 어획량 보고 의무화 검토

수산 자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 수산청은 이제 취미로 하는 낚시에 대해서도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시책들이 검토 단계에 있다.

- 일본 수산청은 최근 수산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 "유어"로 규정되는 레저어획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굳힘

- 전국 구획 별로 (도도부현 별) 등록한 레저어획 어선 업자, 플레저 보트 등을 즐기는 낚시인에게 특정 어종에 대해 어획량 보고를 요구

  - 어종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어획 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 일본 개정어업법 ('20년 12월 시행)에서 어부에 대한 어획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 상태로 두고, 레저어획의 경우에는 어획량 제한 없이 어획할 수 있었던 실정이었으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 유어는 지금도 일본 전국 도도부현 별로 금지구역, 금지기간, 어획 크기 등의 제한은 있음

- 하지만, 치어 보호나 생업으로 하는 어부와의 트러블 회피 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향후, 해안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포함, 일본 정부가 일괄적으로 어획 보고 의무를 부과, 수산 자원 관리 관점에서 레저어획에 대한 관여를 강화할 방침

출처 : 마이니치 신문 (https://mainichi.jp/articles/20211216/ddm/041/010/117000c)

일본 수산 동향

(3) AI로 뱅어 신선도 평가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산분야에도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치 단면 사진을 분석하여 참치 등급을 매기는 기술이 등장하는 등 수산분야에서도 AI 기술 활용도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이바라기현 가스마우라에서 잡히는 뱅어의 신선도를 인공지능 (AI)로 판정해 품질을 담보로 브랜드화를 노리는 가스마우라 뱅어 X AI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 IMA와 이바라기현이 합동으로 어가 향상이나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목표로 진행

  - '22년 7월, 뱅어를 시작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

- 당일 어획된 뱅어를 AI를 탑재한 판정기로 1kg마다 판정하여 신선도가 높은 순서대로 S~C로 등급을 분류

○ 분류된 등급에 따라 생식용, 튀김용 등으로 용도를 나누어 판매하고, 분류에 시간이 단축되어 아침에 갓 잡은 뱅어를 수도권의 고급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됨

○ 가스미가우라 뱅어는 판로가 한정되어 있어 가격 변동이 적고, 어획량에 의존하는 경영이 대부분을 차지함

- 대량으로 어획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필요했음

- 가스마가우라 주변에는 어시장이 없고 뱅어 가격은 현지의 가공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는 판매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고 설명

○ 프로젝트에서는 뱅어의 브랜드화를 통해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판매전략을 구상

○ 대량으로 어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어민 소득 향상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선도를 평가할 때, AI를 활용한 기술로 신선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 AI에 뱅어 신선도를 등급별로 학습시켜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이바라키현 농림수산과나 킨키대학교 수산학과, 동경농업대 생물산업학부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품질 평가를 통해 뱅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

출처 : 미나토 신문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8813)

일본 수산 동향

(4) 3대 대중어 어획 실적 부진 이어져

언제나 잘 잡히고,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종들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일본의 3대 대중어로 불리는 가을 연어, 꽁치, 오징어 또한 과거 최저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다.

○ 가을 연어, 꽁치, 오징어 등의 3대 대중어는 '21년도 기록적인 어획량 부진이 계속됨

- 3가지 어종 모두 북태평양을 크게 회유하여 일본 근해에 가까워졌을 때 어획하는 어종으로, 최근 온난화 영향, 외국어선 어획량이 많아지는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이전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어가 아님

○ 올 가을연어는 홋카이도 정치망의 어획량이 4만 8,000톤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지만 3년 연속 5만 톤보다 적었음

- '80년대 이래로 40년만에 과거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꽁치 또한 11월 말 시점의 수양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1만 7,899톤

- 12월 말 최종 어획량은 2만 톤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상 최저치였던 지난 해 (2만 9566톤)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임

- 꽁치 또한 온난화로 인한 해양 기후 변화와 외국어선에 의한 어획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자원 감소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어 꽁치어업 존속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음

○ 살오징어 수양량 (생선 · 냉동)은 1987년~2015년까지 연간 10만 톤 인상으로 많을 때는 30만 톤 대를 기록할 때도 있었으나, 16년 이후에 급속도로 감소하여 19년에는 3.3만 톤까지 떨어지고, '20년에는 아주 약간 회복한 3.7톤에 불과했음

출처 : 미나토 신문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9150)